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26, Vol. 40, No. 1, 1-27
https://doi.org/10.21193/kjspp.2026.40.1.001

정규논문

한국판 전인류 동일시 척도(K-IWAH) 타당화 연구

정 기 훈　　조 현 주†

영남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McFarland 등(2012)이 개발한 전인류 동일시 척도(IWAH)를 한국판으로 번안하고 타당화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국내 HRC 서베이 업체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의 만 18세 이상, 만 59세 이하의 남녀 각 200명씩 총 40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200명씩 무작위 추출하여 각각, 탐색적 요인분석(EFA)과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총 8문항(한 문항 제외)의 2요인 구조가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확인되어, 서구권 모형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분석 결과 성별, 연령, 학력, 직업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종교 중 불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 전인류 동일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K-IWAH는 자비 및 지속가능한 삶의 태도 변인들과 정적 상관이, 제노포비아와 사회지배성향과는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따라서 K-IWAH는 자비와 지속가능한 삶의 태도에서 수렴 타당도가 확인되었고, 사회지배성향과 제노포비아에서는 변별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넷째, K-IWAH는 한국판 사회정체화를 통제하고도 각각 이타적 행동과 친사회적 행동, 지속 가능한 삶의 태도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증분 타당도도 확인되었다. 다섯째, K-IWAH의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73으로 신뢰로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전인류 동일시 개념을 한국 문화 맥락에서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한 도구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글로벌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협력을 다루는 후속 연구에 활용되기 위한 방향성과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글로벌 시민의식, 전인류 정체성, 타당화, Identification With All Humanity Scale, IWAH

†교신저자: 조현주, 영남대학교 심리학과, (38541)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Tel: 053-810-2237, E-mail: itslife@ynu.ac.kr

ⓒ 2026, Korean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UN 국제이주기구에서 2024년도에 출간한 'WORLD MIGRATION REPORT 2024'에 따르면 22년 말 기준 갈등, 폭력, 기후 관련 사건으로 인한 강제 이주자의 인구를 1억 7,0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2024년 국제 이주자 규모는 약 2억 8,100만 명으로 매우 많은 것으로 보고한다. 이를 통해 최근까지도 국가 간 갈등, 인종 및 종교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2024)에서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수는 246만 명으로 23년 대비 20만 명(8.9%)이 증가하였으며 총 인구 대비 4.8%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는 만큼 이로부터 발생하는 갈등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정체성 이론 및 자기 범주화 이론(Brewer, 1979, Tajfel & Turner, 1979: 정태영 외, 2016에서 재인용)에 따르면, 사회 정체성(Social identity)이란 '자신이 어떤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의식, 집단 소속감에 따른 가치 그리고 정서적 의미로부터 비롯되는 자기개념'이다. 즉, 개인이 국가나 학교, 직장 등 여러 사회 범주에 속함으로써, 집단을 기반으로 하여 자신과 세상을 지각하는 인식 틀을 구성한다고 본다. 또한 사람들이 그들이 속한 집단에 대한 관심이 클수록 그 집단에 근거한 사회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외집단보다 더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이러한 범주가 형성되면 범주 내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와 분리된 독특한 개인이 아닌 서로 대체 가능한 구성원으로 지각하는 탈개인화(depersonalization)가 일어나며, 이는 집단적 행동, 대인 간 매력과 사회적 협동의 근간이 된다고 설명한다(Turner, 1982: 정태영 외, 2016에서 재인용).

최근에는 사회 정체성 이론에 기반을 둔, 높은 차원의 사회 범주를 확인하고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라는 인류 공동체 의식에 대한 필요가 대두되었다. 만일 개인이 '전 인류 공동체'와 같이 보다 높은 차원의 사회 정체성 범주에 속해 있다고 인식하게 된다면, 앞선 인종, 종교, 국가 간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보다 자비심과 포용성 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McFarland, Hackett et al., 2019). 이와 관련하여 McFarland 등은 Alfred Adler(2013)의 사회적 관심(Interest)과 Abraham Maslow(2023)의 자아실현(Self-Actualization)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완전히 성숙한 개인이 자신의 내집단을 넘어 모든 인류를 깊이 보살핀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개념이다(McFarland et al., 2012). 그러나 Adler(2013)와 Maslow(2023)는 각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지는 않았다. 이에 James Crandall(1980)은 사회적 관심을 측정하고자 사회적 관심 척도(Social Interest Scale; SIS)를 개발하였다. 사회적 관심 척도는 자기 외의 것을 소중히 여김을 측정하지만, 이것의 높은 점수가 모든 인류와의 동일시를 보장하지 않으며, 이는 사회적 관심의 점수의 대상이 자신의 가족, 종교, 민족 집단 등에만 국한 될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Crandall, 1980, McFarland et al., 2012). 자아실현을 측정하기 위해 Shostrom(1964)은 Personal Orientation Inventory(예: 나는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느낀다, 나는 실제로 살아가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를, Jones와 Crandall(1986)은 15문항의 단축형 자기실현 척도(예: 나는 나의 어떤 감정에 대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를 개발하였으나, 이들 연구는 인류 전체와의 동일시를 직접적으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McFarland와 그의 동료들(2012)은 인류 전체와의 동일시에 대해 보다 직접적으로 평가하며, IWAH의 개념이 단순한 개인의 도덕적 정체성이나, 보편주의 가치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검증하여 '전인류 동일시 척도(Identification With All Humanity; IWAH)'를 새로이 개발하였다(McFarland et al., 2012).

전인류와의 동일시(IWAH)는 개인이 자신을 전인류와 동일시하는 정도로 정의되며, 인종, 종교 및 기타 구별의 다양성과 관계없이 모든

인류를 돌보고, 염려하고, 돕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이롭다는 개념을 포함한다(McFarland et al.,2012; McFarland, Hackett et al., 2019; Reysen & Katzarska-Miller, 2013). 또한 연구들에 따르면, 이러한 높은 수준의 사회 정체성의 추상화, 즉 전인류에 대한 동일시는 불우한 개인, 세계적인 인권, 세계적 차원의 자선과 국가 간 협력과 같은 친사회적이고 지지적인 행동과 관련 있다(Feng et al., 2023; McFarland et al., 2012; McFarland, Hackett et al., 2019). 초기 McFarland 등(2012)이 IWAH 척도를 개발할 당시 단일 요인 구조를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추후 다국적 연구 결과 독일(Reese, Proch & Finn, 2015), 미국(Harmer et al., 2021; Reysen & Hackett, 2016), 폴란드, 프랑스, 멕시코, 칠레(Harmer et al. 2021), 중국(Feng et al., 2023)에서 2요인 구조를 보였다. Reese 등(2015)은 '글로벌 자기 정의(Global self-definition)'와 '글로벌 자기 투자(Global self-investment)'로, Reysen 등(2016)은 'Adler/Maslow'와 '내집단 정체성(Ingroup identification)', Harmer 등(2021)은 '유대감(Bond)'과 '관심(Concern)', Feng 등(2023)은 '인간성과의 유대감(Bond with Humanity)'과 '인간적 연대감(Human Kinship)'으로 서로 다른 이름을 제안했다. 이와 같은 연구 간의 결과를 살펴보면, Reese 등(2015)과 Reysen 등(2016), Harmer 등(2021)의 연구에서는 1 요인에 1번 문항부터 4번 문항까지가 속했으며, 2요인은 6번부터 9번 문항까지가 속했다. 반면 Feng 등(2023)의 중국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1 요인에 1번 문항부터 5번 문항까지, 2요인에 7번 문항부터 9번 문항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5번 문항("다음 각 집단과 자신을 얼마나 동일시하십니까?(즉, 일부가 되고, 사랑하고, 염려하는지)")과, 6번 문항("귀하는 나쁜 일이 발생할 때, 다음 각 집단에 대해 얼마나 신경 쓰이십니까?(예를 들어, 그들 일에 화가 나거나, 돕고 싶다던가)")의 경우 1 요인과 2요인 모두에 속하는 문항으로 서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Feng 등(2023)은 이러한 차이가 동서양의 문화차이에 의한 것인지 혹은 중국만의 차이인지 확인하기 위해 동양권에서의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IWAH와 유사한 목적으로 개발된 척도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일부 유사한 척도로 자비척도(Lovingkindness-Compassion Scale, LCS; Cho et al., 2018)와 한국판 사회정체화 척도(Social Identification Scale, SIS; 성한기, 2001), 기질 및 성격검사(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 민병배, 오현숙, 이주영, 2021)의 하위 척도인 연대감 요인을 찾아볼 수 있다.

Cho 등(2018)에 따르면 자비는 궁극적으로 너와 내가 다르지 않음을 깨닫고 갈등에 대한 해결을 위해 인류애적 평등성, 즉 모든 인류가 고통을 싫어하고 행복을 원한다는 면에서 동등하다는 원리를 따르고 있다. 또한 Gilbert(2020)는 자비 기반 프로그램을 통해 자비심을 증진하면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하는데 주요한 생리적 및 심리적 영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한 Cho 등(2018)의 자비 척도 및 자비의 개념은 전인류를 염려하고 돌보고자 하며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IWAH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 그러나 해당 척도에서는 자비를 느끼는 대상인 나와 가까운 사람인지, 내가 속한 어떤 집단에 대해서 인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어렵고, 개인의 자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전인류 동일시를 측정하는 용도와는 방향성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논의에 추가로 설명하였다.

성한기(2001)는 사회정체성이론에 근거하여 '한국판 사회정체화 척도(Social Identification Scale, SIS)'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이는 전인류 대상이 아닌 자신이 속한 특정 집단에 대한 동일시를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SIS 척도는 내집단과 외집단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이다. 반면 IWAH는 단순히 특정 내, 외집단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닌, 국가나 인종 등의 경계를 넘어 전인류와 자신이 다르지 않다고 여기는 인류의 보편적인 정체성을 측정

하기에 차이가 있다.

TCI의 하위 요인 중 자신을 '인류 혹은 사회의 통합적 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동일시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연대감 요인(민병배 등, 2021)이 존재하나 금전적인 문제와 TCI의 특정 하위 요인을 따로 측정하기 위해 해당 문항만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규정 등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제약이 많다. 더욱이 '인류 혹은 사회의 통합적 한 부분'(민병배 등, 2021) 역시 자비 척도와 동일하게 정말로 전인류에 대해 느끼고 있는, 즉 구체적인 대상을 확인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국외의 IWAH 척도를 국내에서 번안 및 타당화하고자 한다.

McFarland 등(2012)에 따르면, IWAH는 전인류에 대한 동일시를 의미하므로 집단 간 차별을 주장하는 개념들과는 구분된다. 사회지배성향(Social Dominance Orientation; SDO)은 집단 간 위계와 불평등을 선호하며, 우월한 내집단이 열등한 외집단을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성향 혹은 태도를 의미한다(Sidanius & Pratto, 2011). 반면 IWAH는 모든 인간을 평등한 존재로 여기고 포용하려는 성향 혹은 태도이므로, 위계를 강조하는 사회지배성향과는 개념적으로 상반되며, 부적 상관을 보일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IWAH는 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와도 구별된다. 민족중심주의는 내집단을 과도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외집단에 대해서 편견과 적대감을 갖고 배척하는 경향을 말한다(Levinson, 1950).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타성을 구체화한 개념인 제노포비아를 확인하고자 한다. 제노포비아는 이방인이나 낯선 존재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혐오를 의미하며(김용신, 2014), 이는 인류 전체와의 연결감을 중시하는 IWAH와 대척점에 있는 개념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회지배성향 단축형(SDO; 황미애, 2020; Ho et al., 2015) 척도와, 제노포비아 척도(김용신, 2014; 황은영, 2014)를 사용하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IWAH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려는 보편주의-관용이나 돌봄과 정의에 대한 도덕적 기준으로서의 윤리적 기반,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공감이나 친사회적 행동 및 친환경적 태도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다(Hamer et al., 2019; Hamer et al., 2021; McFarland et al.,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렴 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타인의 고통에 대한 민감성과 돌봄 및 정의에 기반하는 윤리적 성향을 포함하는 LCS(Cho et al., 2018)척도와, 현재와 미래 세대를 포함하여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 공동체의 행복과 안녕을 위한 태도를 포함하는 지속가능한 삶의 태도(Attitude toward Sustainable Life Scale, ASL; 남상규, 2023) 척도를 사용하였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IWAH는 범집단적 관심과 친사회적 행동을 촉진하는 심리적 구성개념으로, 개인이 특정 사회 집단과 맺는 관계, 즉 내외집단에 대한 인식 차이를 설명하는 사회정체화(Social Identification)와는 차별화된 고유한 특징을 가진다(McFarland et al., 2012).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IWAH가 사회정체화와는 독립적으로 친사회적 행동과 태도를 예측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증분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사회정체화를 확인하기 위해 성한기(2001)가 개발한 SIS를 포함했다. 이 척도는 특정 집단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확인한다. 반면 IWAH는 특정 집단을 넘어서 전인류에 대한 동일시를 다루기 때문에 SIS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두 변인 간의 공통성과 차별성을 구분하기 위해 SIS를 통제 변인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IWAH의 고유한 설명력을 확인하기 위해, 이타적 동기와 지속가능한 삶의 태도와 같은 친사회적 태도 및 행동 척도를 포함하였다. 이선화와 이규미(2018)의 이타행동 척도는 이타적 성향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며, 남상규(2023)의 지속 가능한 삶의 태도 척도는 공동체와 생명 중시, 친환경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평가하여, 보편적 인류에 대한 관심과 염려 차원에서 IWAH와 관련된 가치를 잘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자

가 임의로 제작한 친사회적 행동 목록은 실제 일상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친사회적 행동(예: 낯선 사람 도움, 자원봉사, 온라인 캠페인 참여, 헌혈 등)을 IWAH가 구체적인 행동 수준에서 예측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러한 구성은 단순히 태도나 성향을 넘어 행동 수준에서 IWAH의 고유한 예측력을 파악하고자 하며, 본 연구는 이를 통해 IWAH가 기존의 관련 개념들과 구별되는 고유하고 실천적인 심리적 특성임을 검증하고자 한다.

한편 기존 연구들(McFarland et al., 2012; McFarland et al., 2019)에서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접촉 경험이나 국제적인 문제에 대한 짧은 노출을 통해서 이방인 혐오를 감소시키고, 국제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IWAH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범국가적 인권을 중요시하는 Human Rights Watch(HRW)에 속한 직원들과 주요 지지자들, 기독교 국제 자선 단체인 Church World Service(CWS)에 속한 직원들의 경우 IWAH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순한 교육 수준과 직업의 유무가 IWAH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기독교 외의 다양한 종교 집단의 IWAH의 연관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인류 공동체(IWAH) 척도를 한국판으로 타당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 구조를 확인한 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교차 타당화를 검증하고, 기존의 단일요인 모형(McFarland et al., 2012), 서구권 모형(Harmer et al., 2021; Reese et al., 2015; Reysen et al., 2016), 그리고 중국 모형(Feng et al., 2023)과 비교함으로써 동서양의 차이를 탐색한다. 또한 최종 선정된 문항의 신뢰도를 검토한 뒤, 직업, 종교, 교육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에 따라서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실시한다(McFarland et al., 2019). 나아가 척도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 증분 타당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여 한국판 IWAH의 심리측정적 유용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요인 구조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2) 기존 단일 요인/서구권/중국 모형과 비교했을 때 어떤 모형이 적합한가? (3) 척도의 신뢰도는 충분한가? (4)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가? (5) 수렴 · 변별 · 증분 타당도는 확보되는가? (6)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확보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참가자는 만 18세 이상부터 만 50세 이상 60대 미만의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은 '㈜한국리서치'의 온라인조사 패널을 대상으로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모든 참가자는 연구 참여의 모든 과정을 자발적으로 동의하였다. 응답은 2025년 8월 4일부터 8월 29일까지 약 한 달에 걸쳐 수집되었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중에서 중도 포기, 미대상자, 불성실 응답자를 제외하고 총 400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이는 구조방정식 모형의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할 경우, 각 요인분석의 표본 크기가 적어도 200명 정도는 되어야 적합도 지수들이 모형에 대한 올바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주장에 따라 400명의 표본을 모집했다(Bearden, Sharma & Teel, 1982; Boomsma, 1982). 연구 결과 참가자의 성차나 연령별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남성 200명(50%), 여성 200명(50%)이었으며, 연령대별로 각 100명씩 수집되어 평균 연령은 39.6(SD=11.2)세였다. 본 연구는 영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7002016-A-2025-112)을 받아 진행되었다.

측정도구

전인류 동일시 척도(Identification With All

Humanity Scale, IWAH)

IWAH는 McFarland와 Webb, Brown(2012)이 개발한 척도로 개인이 자신을 모든 인류와 동일시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개발 초기에는 전인류 동일시라는 단일요인 척도로 개발되었으나 후속 연구에서 2요인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는 '나의 지역 사회 사람들', '한국인들(미국인들)', '전 세계 사람들'의 세 차원에 각각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1점 '전혀~않다.'부터 5점 '매우~하다.'인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되며, 각 차원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나타낸다. 이때 IWAH의 점수 채점 방식은 다른 두 차원을 제외한 '전 세계 사람들' 차원의 합산 점수를 사용한다. 본 연구의 번안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척도를 국내 심리학과 교수 1명과 상담심리 전공 석사과정생 1명과 박사과정생 1명이 번역한 후, 외국에 거주 중인 한국어와 영어에 모두 능통한 이중언어자 1명이 역번역하였다. 번역과 역번역의 내용의 일치여부에 대한 논의 및 수정을 거쳐 최종 문항을 선정하였다. 한편, 척도를 개발한 IWAH LAB의 Katarzyna Hamer에게 문의하여 사용 허가를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최종 선정된 모형을 기준으로 내적 합치도 계수를 확인한 결과 전체 α = .87, 요인1(문항1~4) α = .82, 요인2(문항6~9) α = .82로 나타났다.

자비 척도(Lovingkindness-Compassion Scale, LCS)

Cho 등(2018)이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는 통찰을 기반으로, 모든 존재의 고통에 민감하여 그들을 돕고 싶고,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인 자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하고 타당화되었다. LCS는 자애(lovingkindness), 연민(compassion), 자기중심성(self-centeredness)의 3가지 하위 요인과 15문항으로 구성된다. 대표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다. "나의 마음은 안정되고 평온하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아무런 대가가 없어도 도움을 주고 싶다.",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하고만 관계를 맺는다.". 척도는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인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되었으며, 3번("타인에게 적대적이다"), 4번("나보다 잘된 사람을 보면 시기하는 마음이 생긴다"), 7번("나에게 상처를 준 대상에게 어떻게든 앙갚음을 하려고 한다"), 11번("나에게 이득이 없으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봐도 모른 체 한다."), 13번("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하고만 관계를 맺는다."), 15번("내가 필요할 때만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 문항은 역채점 후 산출되었다. Cho(2018) 등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계수 α = .85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계수 α = .79(자애 α = .69, 연민 α = .73, 자기중심성 α = .70)로 나타났다.

지속 가능한 삶의 태도 척도(Attitude toward Sustainable Life Scale, ASL)

남상규(2023)가 '현재와 미래세대를 포함하여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공동체의 행복과 안녕을 위한 태도'를 확인하기 위해 개발하였다. 각 하위 요인으로 세 가지가 있다. '공동체'는 '나 그리고 자신이 가깝다고 느끼는 집단의 안녕뿐만 아니라 그렇게 느끼지 않는 집단의 안녕까지 고려하는 태도'로 정의된다. '친환경'은 '개인의 편의보다 환경보호를 우선하는 태도'이며, '생명중심'은 '모든 생명체는 그 나름의 방식으로 고통을 피하고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을 고려한 태도'이다. 문항 수는 15문항으로, 공동체 문항은 '나는 내가 싫어하는 공동체일지라도 그 공동체가 잘되기를 바란다.' 등 4문항, 친환경은 '나는 환경보호를 위해 물을 아껴 쓴다.' 등 6문항, 생명 중심은 '나는 지금보다 동물권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등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응답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6점 '매우 그렇다.'의 6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되었다. 내적합치도 α = .86(공동체 α = .72, 친환경 α = .75, 생명중심 α = .86)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확인 결과

전체 α = .89(공동체 α = .77, 친환경 α = .88, 생명중심 α = .80)으로 나타났다.

사회지배성향 척도(Social Dominance Orientation, SDO)

Ho와 동료들(2015)이 개발 및 타당화한 단축형 척도(SDO7-short)를 황미애(2020)가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지배 요인(SDO-Dominance, SDO-D)과 반평등주의 요인(anti-egalitarianism, SDO-E)의 2요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요인에 4문항,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번 문항에서 4번 문항까지는 SDO-D(예, 어떤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열등하다.), 5번 문항에서 8번 문항까지는 SDO-E(집단들을 평등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은 부당하다.) 요인과 관련이 있다. 3번("어떤 집단도 사회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 4번("사회의 하위그룹도 상위그룹만큼 자격이 있다"), 7번("우리는 다양한 집단의 조건을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 8번("모든 집단은 성공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문항은 역채점한 후 산출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각 문항의 응답은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1점).'에서 '매우 동의한다(5점).'까지로 평정되었다. 황미애(2020)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α = .89(SDO-D α = .81, SDO-E α = .85)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의 내적합치도 α = .75(SDO-D α = .57, SDO-E α = .67)으로 나타났다.

제노포비아 척도(Xenophobia Scale)

이방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대한 인식 양태와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김용신(2014)과 황은영(2014)이 제작한 척도를 사용한 사례 예시 응답형 문항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의 4개 사례와 사례별 이방인 인정, 적대, 수용, 혐오, 포용의 정도를 측정하는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예시는 '외국인 노동자도 우리나라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다양한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더 발전하고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와 같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응답 결과 평균값이 작을수록 관용적이며 클수록 혐오적인 인식을 반영하며 2번("ㅇㅇㅇ의원이 싫다고 한다면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것인가요?"), 4번("ㅇㅇㅇ의원이 국회의원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하나요?"), 7번("외국인 노동자를 싫어한다면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것인가요?"), 9번("외국인 노동자를 자기 나라로 쫓아내야 한다는 철수의 생각에 찬성하나요?"), 12번("중국동포를 싫어한다면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것인가요?"), 14번("중국동포를 다시 중국으로 돌려보내야 하나요?"), 17번("차도르를 계속 착용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싫어한다면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것인가요?"), 19번("우리나라에서 차도르를 계속 착용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야 하나요?") 문항 외의 문항은 역채점 후 산출하였다. 응답의 평균에 따라 관용형(1이상, 2미만), 방어형(2이상, 3미만), 순수형(3이상, 4미만), 혐오형(4이상, 5이하)으로 분류한다. 각 문항의 응답은 '매우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되었다. 황미애(2020)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α = .84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의 내적합치도는 α = .81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사회정체화 척도(Social Identification Scale, SIS)

성한기(2001)가 한 집단에 소속되어 해당 집단의 특성을 자기개념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하였다. 해당 척도는 집단 자기 존중감, 자기 범주화 및 집단 개입의 3 요인의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로는 '이 집단에 속하는 사실이 부끄럽다.', '나는 이 집단과 나를 동일시한다.', 누군가 이 집단을 칭찬하면 내가 칭찬받는 것 같다.' 등이 있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로 평정되었다. 1번

(“나는 이 집단 구성원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치 않다”), 2번(“나는 이 집단의 전형적인 멤버라고 할 수는 없다”), 5번(“나는 이 집단이 내 수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한다”), 6번(“나는 이 집단이 없어지면 좋겠다”), 8번(“나는 이 집단에 속한 사실에 대해서 남들에게 변명하곤 한다”), 10번(“나는 이 집단에 비판적이다”), 14번(“나는 이 집단에 속한 사실이 부끄럽다”), 15번(“나는 이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잘 맞지 않는다”), 16번(“나는 이 집단이 별로 자랑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문항은 역채점한 후 산출하였다. 성한기(2001)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집단자기존중감 α = .84, 자기범주화 α = .83, 집단 개입은 α = .7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α = .72(집단자기존중감 α = .62, 자기범주화 α = .70, 집단 개입은 α = .81)으로 나타났다.

이타행동척도

이선화, 이규미(2018)가 개발 및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에서 이타행동이란 ‘대상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행동으로, 자신의 이익이나 친분의 정도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희생(정신적, 신체적, 시각적, 금전적 투입과 노력)을 감수하면서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으로 정의된다. 이타행동 척도는 즉각적 이타행동, 공감적 이타행동, 사회적 이타행동의 3 요인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되었다. 내적합치도 α = .86(즉각적 이타행동 α = .79, 공감적 이타행동 α = .81, 사회적 이타행동 α =.68)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의 내적합치도 α = .86(즉각적 이타행동 α = .79, 공감적 이타행동 α = .74, 사회적 이타행동 α =.68)으로 나타났다.

친사회적 행동 목록

본 연구에서는 Eisenberg와 Mussen(1989)은 친사회적 행동의 네 가지 구성요소인 돕기(Helping), 나누기(Sharing), 협동하기(Cooperating), 공감적 이해(Empathic understanding)를 참고하여, 지난 1년간 실제 상황에서의 친사회적 행동 빈도를 측정하기 위한 목록을 사용하였다. 구조적/제도적 도움 행동(예: 자원봉사에 참여), 정서적/일상적 도움 행동(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돕는 행동을 한 적이 있다.), 시민적/공공적 행동(예: 온라인 캠페인 참여) 영역에서 임의로 각 3문항씩 총 9문항으로 목록화하였다. 해당 척도는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가 임의로 개발한 자기보고 척도로 실제로 친사회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KMO 값은 .90이었으며, Bartlett 검정 결과 $X^2(36, N=200) = 761.02$, $p < .001$으로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EFA 및 CFA를 실시하였으며, 2요인 구조(CFI = .986, TLI = .981, RMSEA = .036, SRMR = .040)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1은 정서적・직접적 도움 행동(예: “헌혈을 한 적이 있다.”, “자원봉사에 참여한 적이 있다.”, “낯선 사람에 대하여 길을 잃었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운 적이 있다.”), 요인 2는 사회적・간접적 참여 행동(예: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한 적이 있다.”, “환경보호를 위한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적이 있다.”, “사회적/시민적 참여 행동을 한 적이 있다.”)으로 명명하였다. 수렴 타당도 지표로 AVE와 CR을 사용하였다. AVE는 잠재 변수가 측정 오차에 비해 측정 변수들의 분산을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AVE 값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CR은 측정 변수들이 해당 구성 개념을 얼마나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지 나타내는 내적 일관성 지표로 .70 이상일 경우 양호한 신뢰도로 평가한다(Cheung, Cooper-Thomas, Lau, & Wang, 2024; Fornell & Larcker, 1981). AVE(.532, .512)와 CR(.846, .807)는 모두 기준치를 충족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α = .88(정서적・직접적 도움 행동 α = .84, 사회적・시민적 참여 행동 α = .78)로 통계적으로 수용가능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분석절차

모든 자료는 R 4.4.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psych, lavaan, semTools, lm.beta등 관련 패키지를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정규성 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척도들의 왜도와 첨도를 산출했다. 이때 왜도의 절댓값은 2 미만, 첨도의 절댓값은 7 미만인 경우 자료가 정규성 분포를 따른다고 본다(West, Finch & Curran, 1995). 이후 문항과 총점 간 상관계수를 산출해 척도와 상관이 낮은 문항을 확인하였다. 그 후 한국판 IWAH의 교차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성별과 연령대가 균등하게 분포된 400명의 표본을 구성한 뒤, 성별 및 연령이 동일한 비율이 유지되도록 무작위로 두 집단(각 200명)으로 나누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과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에 각각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자료의 KMO 표본 적합도 지수(Kaiser-Meyer-Olkin Measures of Sampling Adequacy)를 확인 한 뒤 Bartlett 구형성 검정(Bartlett's Test of Sphericity)을 함께 확인하였다. KMO는 변수 간의 상관성을 나타내는 척도로 1에 가까울수록 적정한 자료로 해석할 수 있으며, .9 이상이면 좋음, .8 이상이면 양호, .6~.7 이상이면 보통, .5 이하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Kaiser, 1974). Bartlett 구형성 검정은 수집된 자료들의 상관계수 행렬이 단위행렬이라는 영가설을 검증하는 것으로, p 값이 유의수준인 .05보다 작아야 적합한 자료로 본다(Bartlett, 1950). 이후 K-IWAH의 확인적 요인 구조를 탐색하였다. 요인 추출 방법으로는 최대 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다. 이는 자료의 대상을 표본으로 가정하여 요인 수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Fabrigar, Wegener, MacCallum & Strahan, 1999). 회전 방식은 문항 간 상관을 고려해 사각 회전 중 Oblimin 방법을 사용하였다(Worthington & Whittaker, 2006). 요인 수 확인을 위해 평행 분석(parallel analysis)을 사용하였다(Horn, 1965). 평행 분석 시 스크리 도표(scree plot)를 활용하였으며, 요인부하량이 .4 이상인 문항들을 최종 문항으로 선정하였다(Russell, Kahn, Spoth & Altmaier, 1998).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확정된 문항을 바탕으로 사전에 구분해 둔 나머지 200명의 자료를 통해 요인 구조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단일 모형과 국가별 모형과 비교하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할 때 χ^2은 표본의 크기에 따라 요인 수를 과대 추정하는 경향이 있어 χ^2, CFI, TLI, SRMR, RMSEA를 고려하여 함께 보고한다(Fabrigar et al., 1999). CFI 및 TLI는 .9이상일 경우 좋은 적합도로 본다(Black, Babin, Anderson & Tatham, 1998). SRMR와 RMSEA의 경우 .05보다 작을 경우 적절한 적합도로 .08보다 적을 때 괜찮은 적합도로 본다(Hu & Bentler, 1999). 각 요인분석을 완료 후 최종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전체 자료를 사용하여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이후 100명을 대상으로 2주 뒤 시간의 변화에 따른 결과 변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였다(Nunnally & Bernstein, 1994). 검사-재검사 결과를 확인 할 때 Pearson상관계수는 체계적 오류를 감지하지 못한다는 주장에 따라 체계적 오류와 무작위 오류를 모두 고려하는 ICC(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방법을 활용하였다(Koo & Li, 2016). ICC가 .5미만 인 경우 낮음, .5에서 .75 사이면 보통, .75에서 .9면 좋음, .9 초과 시 매우 우수한 점수로 해석한다(Koo et al., 2016). 그 후 K-IWAH의 인구통계학적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Pearson 상관 분석을 통해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상관관계의 크기는 .10은 작은 크기, .30은 중간 크기, .50은 큰 크기로 해석하였다(Cohen, 1988). 끝으로 증분 타당도는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여, 기존 변인 투입 후 K-IWAH 점수를 추가했을 때 설명량(ΔR^2)이 유의하게 증가하는지 확인하였다.

결 과

문항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 문항 분석을 실시하였다. IWAH 척도의 문항 총점 간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이때 '전 세계 사람들' 차원의 점수 합산만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문항의 왜도는 .17에서 1.04 사이로 절댓값 2 미만, 첨도는 -.55에서 +.58 사이로 절댓값 7 미만의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다(West et al., 1995). 각 문항의 총점 간 상관 범위는 .60에서 .76이었으며, 전체 문항의 내적 타당도는 .89로 문항 삭제 시 내적 타당도가 증가한 문항이 없어, 모든 문항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확인했다. KMO 표본 적합도 지수는 .90로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 검정 결과 X^2(36, N=200) =738.55, p < .001로 본 자료는 데이터 분석을 위해 적합하였다. 한국판 IWAH의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해 평행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수집된 자료에서 단일 요인과 요인이 2의 고유값이 무선 자료의 고유값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요인이 3개 이상이 되는 순간 무선 자료의 고유값이 더 커졌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한국판 IWAH는 2요인 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X^2(36, N=200) =738.55, p < .001, TLI = 1.001, RMSEA = 0.000 (90% CI: .000 -.061). 최종 2요인의 총설명량은 53.1%였다. 요인 1은 전체 변량 중 29.9%를 설명하였으며, "다음 각 집단에 대해 얼마나 가까움을 느끼십니까?", "다음 각 집단과 얼마나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각 집단의 사람들을 지칭할 때 "우리"라는 단어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십니까?"와 같이 전인류 집단에 대한 정서적 친밀감 또는 내집단 동일시를 측정하는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요인 2는 전체 변량 중 23.2%를 설명하였다. "귀하는 나쁜 일이 발생할 때, 다음 각 집단에 대해 얼마나 신경쓰이십니까?(예를 들어, 그들 일에 화가 나거나, 돕고 싶다던가)", "다음 중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얼마나 도와주고 싶으십니까?"와 같은 전인류에 대한 이타적 행동 의지에 대한 것을 묻는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1. 한국판 IWAH 문항분석(N = 400)

문항번호	M	SD	문항 총점 상관	문항 삭제 시 내적 타당도
1	2.24	0.85	.64	.88
2	1.90	0.96	.58	.88
3	2.21	0.85	.63	.88
4	1.69	0.90	.69	.87
5	1.92	0.90	.75	.87
6	2.33	0.93	.68	.88
7	2.66	1.04	.59	.88
8	2.32	0.96	.64	.88
9	2.55	0.97	.63	.88

주 1. M = Mean, SD = Standard Deviation

표 2. 한국판 IWAH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설명	요인		공통성
		1	2	
1	다음 각 집단에 대해 얼마나 가까움을 느끼십니까?	**.68**	.04	.49
2	다음 각 집단의 사람들을 지칭할 때 "우리"라는 단어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십니까?	**.83**	-.13	.57
3	다음 각 집단과 얼마나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9**	.07	.41
4	때때로 사람들은 직계 가족이 아닌 사람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다음 각 집단을 어느 정도로 "가족"으로 생각하십니까?	**.73**	.05	.59
5	다음 각 집단과 자신을 얼마나 동일시하십니까?(즉, 일부가 되고, 사랑하고, 염려하는지)	**.66**	.19	.64
6	귀하는 나쁜 일이 발생할 때, 다음 각 집단에 대해 얼마나 신경 쓰이십니까? (예를 들어, 그들 일에 화가 나거나, 돕고 싶다던가)	.18	**.63**	.58
7	다음 중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05	**.61**	.42
8	귀하는 각 그룹에 대해 어느 정도 충성심을 갖나요?	.08	**.60**	.44
9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얼마나 도와주고 싶으십니까?	-.08	**.85**	.64

주 1. 각 요인 별 해당하는 요인 부하량은 굵게 표시하였음.
주 2. 요인 1 = 전인류에 대한 심리적 동일시, 요인 2 = 전인류적 책임감

따라서 요인 1을 전인류에 대한 심리적 동일시(Psychological Identification With All Humanity), 요인 2를 전인류적 책임감(Responsibility for All Humanity)이라고 명명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요인 구조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요인분

표 3. 한국판 IWAH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모형	χ^2	*df*	CFI	TLI	SRMR	RMSEA	RMSEA 90% CI	
							Lower	Upper
단일요인	81.12***	27	.915	.887	.057	.100	.078	.122
2요인(1)	26.80*	19	**.985**	**.978**	**.036**	**.045**	.000	.078
2요인(2)	34.86*	19	.971	.958	.040	.065	.032	.095
2요인(3)	48.98**	26	.964	.950	.042	.066	.040	.092

주 1. CI = Confidence Interval, CFI = Comparative Fit Index, TLI = Tucker Lewis Index, SRMR = Standard Root Mean Residual, RMSEA =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주 2. 2요인(1)-서구권 2요인 구조: 요인 1 = item 1~ 4, 요인 2 = item 6~9; 2요인(2)-중국 2요인 구조: 요인 1 = item 1~ 5, 요인 2 = item 7~9; 2요인(3)-EFA 2요인 구조: 요인 1= item 1~ 5, 요인 2 = item 6~9
*p < .05, **p < .01, ***p < .001.

석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초기 척도 개발 당시의 단일요인모형(McFarland et al., 2012)과 서구권의 2요인 모형(Harmer et al., 2021; Reese et al., 2015, Reysen et al., 2016), 중국의 2요인 모형(Feng et al., 2023) 및 탐색적 요인분석 2요인 구조 모형을 각각 비교하였다(표 3). 단일요인모형의 경우 RMSEA 값이 기준을 초과하여 적합하지 않으며, 2요인(2) 모형과 2요인(3) 모형도 수용 가능한 수준이나 2요인(1) 모형, 즉 서구권 모형(CFI = .985, TLI = .978, SRMR = .036, RMSEA = .045)이 모든 지표에서 가장 뛰어난 적합도를 보여 최종 모형으로 선정하였으며, 이후 모든 분석은 선정된 최종 모형을 기준으로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최종 모형에 대한 표준화 계수 추정치 및 요인 부하량은 표 4에 제시하였다. 2요인(2) 구조 문항의 표준화된 계수 추정치들은 .68-.78(*all ps* < .001)의 범위 내에 속해 있다.

신뢰도 검증

최종 선정된 문항을 고려한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400명의 전체 자료를 통해 8문항에 대한 기술 통계 분석 및 내적 타당도 계수를

표 4. 2요인 구조 IWAH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번호	*Estimate*	*SE*	*Z*	*p*	*Stand. Estimate*
요인 1	IWAH_1	.68	.06	11.43	< .001	.78
	IWAH_2	.68	.08	8.57	< .001	.68
	IWAH_3	.68	.06	11.69	< .001	.74
	IWAH_4	.73	.06	11.32	< .001	.77
요인 2	IWAH_6	.75	.06	12.92	< .001	.77
	IWAH_7	.73	.07	11.29	< .001	.68
	IWAH_8	.76	.06	13.84	< .001	.78
	IWAH_9	.78	.06	14.29	< .001	.78

주 1. IWAH = 전인류 동일시 척도(Identification With All Humanity)

주 2. *SE* = Standard Error , *Z* = Estimate/SE

표 5. IWAH의 최종 문항 분석 및 신뢰도(*N* = 400)

요인	*문항번호*	*M*	*SD*	*문항 총점 상관*	*문항 삭제 시 내적 타당도*
요인 1	IWAH_1	2.24	0.69	.64	.85
	IWAH_2	2.29	0.68	.57	.86
	IWAH_3	2.24	0.69	.61	.86
	IWAH_4	2.32	0.68	.66	.85
요인 2	IWAH_6	2.23	0.68	.67	.85
	IWAH_7	2.18	0.67	.59	.86
	IWAH_8	2.23	0.68	.64	.85
	IWAH_9	2.19	0.68	.62	.85

재산출하여 표 5에 제시하였다. 총 400명의 참가자들의 문항 총점 평균은 17.91(SD = 5.40)이었으며, 문항의 전체 내적 타당도 계수는 .87이었다. 요인 1의 내적 타당도는 .82, 요인 2의 내적 타당도는 .82로 확인되었다. 문항 삭제 시 전체 척도의 내적 타당도를 크게 저하하는 문항은 없었다.

검사-재검사 신뢰도

Adam E. Wyse(2021)에 따르면 첫 번째 검사 이후 2주에서 3주 뒤에 검사 재검사를 하였을 때 적절한 신뢰도 계수를 획득할 수 있으며, 3주 이상의 간격이 길어질 경우 피검자의 능력 변화로 인해 신뢰도 계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본 1을 처음 조사한 시점에서 2주 후 재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는 최초 모집한 400명 중 재검사에 동의한 1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Pearson 상관 계수의 한계로 인해 ICC를 활용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한국판 IWAH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한국판 IWAH의 최종 문항을 토대로 전체 표본(N = 400)으로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7). 그 결과 종교를 제외한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유무에 따른 한국판 IWAH의 전체 문항 및 하위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IWAH의 전체 점수와 종교에서 작지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4, 395) = 3.32, p < .05, η^2 = 0.03). 한국판 IWAH의 총점으로 Tukey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불교 집단이 종교 없음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diff = -2.97, p < .01). 독립 표본 t 검정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t(398) = 3.36, p < .01, Cohen's d = .57). 전체 종교의 IWAH 하위 요인 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요인 1에 대해서도 종교는 작지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4, 395) = 4.49, p < .01, η^2 = 0.04). 한국판 IWAH의 요인 1에 대해서 Tukey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마찬가지로 종교 없음 집단은 불교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diff = -1.81, p < .001), 독립 표본 t 검정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58.42) = 3.68, p < .001, Cohen's d = .64). 요인 2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4, 395) = 1.49, p = .21, η^2 = 0.01).

수렴 및 변별 타당도

최종 척도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판 IWAH와 LCS, 지속가능한 삶의 태도, 제노포비아, 사회지배성향 단축형 점수 간의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7). 한국판 IWAH의 전체 척도와 소척도 간의 관계를 살펴봤을 때, 요인 1,(r = .95, p < .001)과 요인 2(r = .96, p < .001) 모두 전체 척도와 큰 상관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수렴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비 척도(r = .27, p < .001) 및 지속

표 6. 검사-재검사(N = 100)

검사-재검사	ICC(2,1)	95% CI	
		Lower	Upper
factor 1	.68***	.57	.77
factor 2	.67***	.55	.76
IWAH	.73***	.63	.80

*p < .05, **p < .01, ***p < .001

표 7. IWAH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명)	전체	요인 1	요인 2
		M(SD)		
성별	남자(200)	18.10(5.62)	8.27(2.92)	9.85(3.23)
	여자(200)	17.70(5.17)	7.82(2.80)	9.88(3.06)
연령	만 18-29세(100)	18.90(5.42)	8.47(2.95)	10.40(3.11)
	만 30-39세(100)	17.60(5.39)	7.84(2.76)	9.74(3.21)
	만 40-49세(100)	17.75(5.45)	7.94(2.97)	9.57(3.05)
	만 50-59세(100)	17.70(5.30)	7.93(2.77)	9.74(3.17)
종교	개신교(76)	18.30(5.63)	8.21(2.89)	10.10(3.24)
	천주교(39)	18.40(5.59)	8.46(2.75)	9.95(3.34)
	불교(45)	**20.20(5.47)**	**9.44(3.07)**	**10.80(3.00)**
	종교 없음(236)	17.20(5.20)	7.64(2.77)	9.59(3.10)
	기타(4)	19.50(2.65)	9.25(0.96)	10.20(1.71)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56)	18.70(6.14)	8.57(3.35)	10.10(3.29)
	대학교(4년 미만) 재학/졸업(79)	17.60(4.85)	7.62(2.61)	9.94(2.92)
	대학교(4년제 이상)재학/졸업(236)	18.10(5.45)	8.19(2.91)	9.91(3.16)
	대학원 재학 이상(4)	16.80(5.07)	7.55(2.38)	9.28(3.24)
직업	직장인(자영업자, 프리랜서 포함)(269)	17.80(5.52)	8.01(2.9)	9.78(3.14)
	학생(41)	17.90(5.17)	7.98(2.85)	9.90(3.24)
	가정주부(47)	18.10(4.91)	8.11(2.77)	9.98(2.89)
	무직(43)	18.40(5.50)	8.23(2.76)	10.20(3.40)
총점		17.91(5.40)	8.04(2.86)	9.86(3.14)

주 1. *M* = Mean, *SD* = Standard Deviation, 문항 평균 표준화 점수
주 2. 요인 1 = 전인류에 대한 심리적 동일시, 요인 2 = 전인류적 책임감

가능한 삶의 태도(r = .28, p < .001)로, 중간 크기보다 다소 작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IWAH척도와 LCS 척도의 하위 척도인 연민(r = .32, p < .001) 과 자애(r = .30, p < .001)는 중간 크기의 상관을 보였으며, 자기중심성(r = .00, p > .05)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전체 IWAH와 지속가능한 삶의 태도 하위 척도인 공동체(r = .40, p < .001)와는 중간 크기의 정적 상관을 보여 줬으며, 친환경(r = .23, p < .001)과는 작은 크기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생명중심(r = .10, p > .05)에서는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IWAH의 요인 1 소척도와의 상관분석 시행 결과 전체 자비 점수(r = .22, p < .001)와 자비의 하위 척도인 연민(r = .24, p < .001), 자애(r = .29, p < .001)와 작은 크기의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자기 중심성(r = -.05, p > .05)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요인

1과 전체 지속가능한 삶의 태도(r = .22, p < .001) 및 하위 요인인 친환경(r = .18, p < .01)과는 작은 크기의 상관을 보였으며, 공동체(r = .34, p < .001)와는 중간 크기의 상관을 보였다. 생명중심(r = .05, p < .001)에서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IWAH 요인 2와 전체 LCS 척도(r = .30, p < .001), 하위 척도인 연민(r = .36, p < .001)과는 중간 크기의 상관을 보였으며 자애(r = .28, p < .001)에서는 중간 크기의 상관을 보였다, 자기중심성(r = .03, p < .001)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요인 2와 전체 지속가능한 삶의 태도(r = .31, p < .001)와 하위 척도인 공동체(r = .41, p < .001)와는 중간 크기의 상관을 보였으며, 친환경(r = .25, p < .001)과는 작은 크기의 상관을 나타냈다. 생명중심(r = .14, p > .05)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상관 분석 결과, LCS 척도와 지속 가능한 삶의 태도 척도에서 -.05에서 .41 범위로 나타났다. 이는 수렴 타당도를 부분적으로 확보한 상황이기에 추가로 CFA 결과를 바탕으로 한 AVE 및 CR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요인 1의 AVE는 .553, CR은 .831이며, 요인 2의 AVE는 .568, CR은 .840으로 모두 기준치를 충족하여 수렴 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전체 IWAH와 제노포비아 척도(r = -.23, p < .001)는 약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전체 사회지배성향 단축형

표 8. 한국판 IWAH와 LCS 척도, 제노포비아 척도, 지속가능한 삶의 척도, 사회지배성향 척도 사이의 Pearson 상관분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IW	-														
IW 1	.95***	-													
IW 2	.96***	.84***	-												
L	.27***	.22***	**.30*** **	-											
L cp	**.32*** **	.24***	**.36*** **	.76***	-										
L lk	**.30*** **	.29***	.28***	.78***	.47***	-									
L sc	-.00	-.05	.03	.69***	-.25***	.28***	-								
SL	.28***	.22***	**.31*** **	.47***	.54***	.33***	-.17*	-							
SL cl	.10	.05	.14	.35***	.38***	.22***	-.18**	.77***	-						
SL co	**.40*** **	**.34*** **	**.41*** **	.45***	.49***	.35***	-.16*	.75***	.37***	-					
SL ef	.23***	.18**	.25***	.36***	.46***	.26***	-.09	.88***	.47***	.57***	-				
XE	-.23***	-.18**	-.26***	-.38***	-.38***	-.25***	-.21***	-.30***	-.30***	-.27***	-.17*	-			
S	-.00	.04	-.04	-.34***	-.31***	-.15	-.31***	-.33***	-.36***	-.15*	-.26***	.35***	-		
S_D	-.03	.00	-.05	-.30***	-.25***	-.13	-.30***	-.30***	-.31***	-.14	-.25***	.27***	.87***	-	
S_E	.01	.06	-.03	-.30**	-.30***	-.13	-.25***	-.29***	-.32***	-.13	-.22***	.34***	.89***	.55***	-

주 1. IW = 전체 IWAH 점수, IW1 = 전인류에 대한 심리적 동일시, IW2 = 전인류적 책임감, L = 자비, Lcp = 자비-연민, Llk = 자비-자애, Lsc = 자비-자기중심성, SL = 지속가능한 삶의 태도, SLcl = 지속가능한 삶-생명중심, SLco = 지속가능한 삶-공동체, SLef = 지속가능한 삶-친환경, XE = 제노포비아, S = 사회지배성향, S_D =사회지배성향-지배, S_E = 사회지배성향-반평등

*p < .05, **p < .01, ***p < .001.

척도(r = -.00, p > .05)와는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사회지배성향 단축형 척도의 하위요인인 지배(r = -.03, p > .05)와 반평등(r = .01, p > .05)과도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소척도 간의 상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인 1과 요인 2 모두 제노포비아(r = -.18~-.26, p < .001)에서 작은 크기의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전체 사회지배성향 및 사회지배성향 하위척도들(r = -.05~.06, p > .05)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증분 타당도

각각 이타행동과 지속가능한 삶의 태도, 친사회적 행동 목록을 종속변인으로 1단계에서는 SIS를 2단계에서는 IWAH를 투입하였다. 분석결과 SIS를 통제한 후에 IWAH는 이타행동(ΔR^2 = .040, β = .207, p < .001), 지속가능한 삶의 태도(ΔR^2 = .046, β = .221, p < .001) 및 친사회적 행동 목록(ΔR^2 = .041, β = .210, p < .001)을 예측하는 데 대해 각각의 4%, 5%, 4%의 유의한 추가 설명량을 보였다(표 9).

논 의

본 연구는 인종, 성별, 종교, 국적 등의 구별 없이 전인류를 동일시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IWAH 척도를 한국판으로 타당화하였다. 연구결과, 한국판 IWAH는 원척도 9문항에서 한 문항이 제외된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원척도의 후속 연구들과 동일한 2요인 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 선정된 2요인 구조로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했다. 한국판 IWAH의 검사 재검사 신뢰도 역시 적절한 수준을 보였으며, 변별 타당도와 증분타당도 또한 양호하였다. 그러나 자비와 지속가능한 삶의 태도를 사용한 수렴 타당도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IWAH를 비롯한 세 개념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구별될 수 있는 개념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한국판 IWAH 척도는 선행 연구와 동일하게 2요인 구조를 보였으나 문항 구성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요인 1은 '전인류에 대한 심리적 동일시(Psychological Identification With All Humanity)'로 명명했으며, 문항 1, 2, 3, 4, 5번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의 내

표 9. IWAH 증분타당도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p)$	R^2	ΔR^2	F
이타행동	한국판사회정체화	.481	.068	.335	7.099***	.112	-	50.391***
	한국판사회정체화	.403	.069	.281	5.868***	.152	.040	18.686***
	IWAH	.190	.044	.207	4.323***			
지속가능한 삶	한국판사회정체화	.554	.096	.278	5.784***	.078	-	33.459***
	한국판사회정체화	.438	.097	.220	4.527***	.123	.046	20.650***
	IWAH	.281	.062	.221	4.544***			
친사회적 행동 목록	한국판사회정체화	.362	.116	.155	3.130**	.024	-	9.795**
	한국판사회정체화	.234	.118	.100	1.987*	.065	.041	17.452***
	IWAH	.314	.075	.210	4.178***			

*p < .05, **p < .01, ***p < .001

용은 “다음 각 집단에 대해 얼마나 가까움을 느끼십니까?”, “다음 각 집단과 얼마나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각 집단과 자신을 어느 정도로 동일시하십니까?”와 같다. 각 문항은 심리적인 거리감이나, 우리감, 동일시와 같은 집단에 대한 친밀감, 소속감, 동일시, 정체성을 핵심으로 가지는 문항으로, 특정 집단과의 심리적 거리감 및 동일시 수준을 측정한다. 요인 2는 ‘전인류적 책임감(Responsibility for All Humanity)’으로 명명했으며, 문항 6, 7, 8, 9로 구성되었다. 해당 문항의 내용은 “귀하는 나쁜 일이 발생할 때, 다음 각 집단에 대해 얼마나 신경쓰이십니까?”,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얼마나 도와주고 싶으십니까?”, “귀하는 각 그룹에 대해 어느 정도 충성심을 갖나요?”와 같이 인류 보편에 대한 관심이나 염려, 도움의지와 충성심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행동의지와 책임감, 정서적 관여와 헌신 등을 핵심으로 가진다. 두 요인을 비교하였을 때, 요인1의 경우 정체성이나 심리적 동일시와 같이 개인이 전인류에 대한 인식 수준을 반영하는 반면, 요인 2는 전인류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 행동을 하고자 하는 행동 의지와 관련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는 모든 문항이 두 요인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었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 서구권 연구(Harmer et al., 2021; Reese et al., 2015; Reysen et al., 2016)에서는 “다음 각 집단을 얼마나 동일시 하십니까?(즉, 일부가 되고, 사랑하고, 염려하는지)”라는 5번 문항이 두 요인에 걸쳐 이중 적재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본 연구와 중국의 연구(Feng et al., 2023)에서는 해당 문항이 ‘전인류에 대한 심리적 동일시’ 요인에만 명확하게 적재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문항 5의 개념을 문화적으로 다르게 인식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Markus와 Kitayama(1991)가 제시한 self-construal에 따르면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감정을 자기 정체성의 핵심으로 보는 독립적 자기가 발달하여, 내면적 속성을 중시한다고 본다. 이러한 특징이 문항 5번의 정서적 측면(‘사랑하고, 염려하는지(feel love toward, have concern for)’)에 대한 개인적 가치 또는 도덕 원칙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IWAH의 두 하위 요인 모두에 관여됐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관계와 소속감을 중시하는 상호 의존적 자기가 발달하여 ‘동일시’라는 인지적 측면에 집중한 결과로 ‘전인류에 대한 심리적 동일시’ 요인에 연관되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척도의 사용에 있어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결과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같은 집단주의 문화권인 중국 연구(Feng et al., 2023)와도 미세한 차이를 드러냈다. 중국 연구에서는 문항 6번, “귀하는 나쁜 일이 발생할 때, 다음 각 집단에 대해 얼마나 신경쓰이십니까?(예를 들어, 그들 일에 화가 나거나, 돕고 싶다던가)”에서 이중 적재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전인류적 책임감’ 요인에만 명확히 적재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 특유의 ‘우리성(woori-ness)’과 ‘정(Jeong)’ 문화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는 타인의 불행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즉각적인 도움의 의무로 연결하는 ‘우리성’과 ‘정’ 문화(Chung & Cho, 2006)가 ‘신경 쓰임(정서적 공감)’과 ‘도움 의지’를 하나의 ‘책임감 요인’으로 강하게 통합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중국의 ‘꽌시’는 관계에 기반한 상호 호혜성을 중시하므로(Chen & Chen, 2004; Hwang, 1987), ‘신경 쓰임’이 ‘관계 확인(동일시 요인)’과 ‘도움(책임감 요인)’ 양쪽 모두에 걸쳐 나타났을 수 있다. 이는 집단주의라는 동일한 문화권 내에서도 각 사회의 고유한 문화적 특징이 심리적 척도의 구조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 주는 중요한 결과이다.

둘째,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한국판 IWAH 척도의 최종 구조를 결정하고, 타당성을 검증하여, 최종 구조를 8문항 2요인 모형으로 확정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단계에서 5번 문항이 양호한 요인부하량을 보여 한국 문화의 고유한 특수성(‘우리성’과 ‘정’)을 반영하는 지표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서구권 연구 기반

의 2요인 모형(문항 5 제외)을 최종 모형으로 채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형 적합도 비교 결과 서구권 모형이 EFA 모형을 포함한 다른 모형들에 비해 가장 우수한 통계적 간명성과 적합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둘째, 척도의 국제적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판 IWAH의 표준형으로 8문항 구조를 제안한다. 다만, 5번 문항이 한국적 맥락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후속 연구의 목적에 따라 '문화적 특수성'을 탐색하고자 하는 국내 연구에 한해 5번 문항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여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향후 독일, 미국, 멕시코 등과의 국제 비교 연구에서는 구조적 동일성을 유지하고, 국내 심층 연구에서는 문화적 고유성을 포착할 수 있게 하여 척도 활용의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IWAH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학력, 연령, 직업 유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종교 중 불교의 경우, 종교 없음 집단에 비해 전체 IWAH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를 하위 요인으로 분석한 결과, 이러한 차이는 '전인류에 대한 심리적 동일시' 요인에서만 유의했으며, '전인류적 책임감' 요인에서는 유의한 점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불교의 핵심 사상인 삼라만상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緣起)'와 모든 존재는 고정된 자성이 없이 서로 의존하여 발생하고 멸(조건생 조건멸)한다는 '공' 사상을 바탕으로, 모든 존재를 차별 없이 고통 받지 않기를 바라고 이롭게 하려는 '자비(慈悲)'의 개념(조현주, 2014; 조현주, 2019; Cho, 2018)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즉, 불교 신자들이 보여 준 높은 수준의 '전인류에 대한 심리적 동일시'는 삶의 실상에 대한 지혜를 바탕으로 자비의 마음이 인류 전체로 확장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종교별 표본의 수가 적어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각 종교의 교리적 특징이 IWAH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한국판 IWAH의 수렴 타당도는 LCS 및 지속가능한 삶의 태도 척도와 작은 크기나 중간 크기의 상관을 보여, 수렴 타당도가 부분적으로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IWAH 척도의 타당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각 척도가 측정하고자 하는 핵심 영역에서 개념적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즉 세 척도 모두 구별 및 차별 없이 인류를 염려하고 돌보고자 하며, 돕는 것이 모두에게 이롭다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남상규, 2023; 노승혜, 2020; Cho, et al., 2018; Mcfarland et al., 2012; Mcfarland et al., 2019). 그러나 IWAH 척도는 '개인이 자신을 전인류와 동일시하는 정도'로 정의되며 이는 인류 구성원 전체에 대한 정체감과 동일시를 보다 직접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며(McFarland et al.,2012; McFarland et al., 2019), LCS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 세상 모든 존재의 고통에 민감하고, 그 고통을 경감시켜 주고 싶은 동기'로 친사회적 정서와 동기적 측면을 측정한다(노승혜, 2020; Cho, et al., 2018). 지속가능한 삶의 태도 역시 '현재와 미래세대를 포함하여 인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행복과 안녕을 위한 태도'로 인간뿐만 아니라 환경과 생명, 사회적 태도의 측면을 측정한다고 볼 수 있다(남상규, 2023). 따라서 이러한 개념적 연결과 차이는 하위 요인분석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IWAH의 인류 보편에 관한 관심과 도움의지를 포함하는 '전인류에 대한 책임감' 요인은 타인의 고통에 마음 아파하며 돕고 싶은 마음을 측정하는 'LCS-연민' 요인과 중간 크기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이는 두 개념이 '타인을 도우려는 의지'라는 속성을 공유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 준다. 동시에 IWAH와 정반대 개념으로 볼 수 있는 'LCS-자기중심성'과는 관련이 없었고, 지속가능한 삶의 태도 하위 요인 중 개념적으로 가장 유사한 '공동체적 태도'와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상관분석만으로는 IWAH의 타당성을 충분히 확

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AVE(요인1 = .553, 요인2 = .568)와 CR(요인1 = .831, 요인2 = .840) 값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모든 기준치를 충족하여 최종적으로 IWAH의 수렴 타당도는 확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면 변별 타당도는 양호하게 나타났다. 이방인에 대한 두려움이나 배척하는 태도를 측정하는 제노포비아(김용신, 2014; 황은영, 2014)의 개념은 인종이나 종교, 성별 등에 구분 없이 하나의 전인류로 여기는 태도를 측정하는 IWAH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작은 크기의 역상관을 보임으로써 개념이 상반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전 연구들에서와 사회지배성향은 IWAH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보고하고 있으며(McFarland et al,. 2012; Mcfarland et al., 2019), 연구 결과 역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서로 다른 개념임을 확인했다.

IWAH의 증분 타당도를 확인한 결과, SIS를 통제하고도 각각 이타행동, 지속가능한 삶의 태도, 친사회적 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추가적인 설명량을 보여 주었다. 특히 지난 1년간의 실제 친사회적인 행동을 묻는 친사회적 행동 목록에서는 한국판 사회정체화 척도보다도 큰 설명량을 보여 주었다. 이는 한국판 IWAH가 단지 개인의 전인류에 대한 동일시와 도움 의지를 넘어 실질적인 친사회적 행동을 예측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결과이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분석 결과, ICC값은 .67에서 .73 사이로, Koo와 Li(2016)의 기준에 따라 '보통' 수준에 해당하는 신뢰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판 IWAH 척도가 시간의 변화에 따른 측정 오차가 존재하나, 연구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에는 충분히 수용 가능한 수준임을 시사한다. 특히, 100명이라는 충분한 규모의 표본을 통해 검증했다는 점에서 결과의 안정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종합하면, 한국판 IWAH는 수렴 및 변별 타당도와 증분타당도, 신뢰도가 모두 확보된 신뢰로운 도구라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결과를 바탕으로 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첫째, IWAH가 자비 척도와 부분적으로 상관을 보인다는 점에서, Mcfarland 등(2019)이 확인한 IWAH 증진 방안으로서 글로벌 이슈에 노출되게 하거나, 다문화 교육, 문화교류 경험 등에서 나아가, 자비 중심 명상 프로그램과 자비 관련 심리치료 개입이 IWAH의 기반으로서 '전인류에 대한 심리적 동일시'를 증가시킬 수 있는지 탐색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IWAH가 실질적으로 친사회적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 연구를 통해 IWAH가 높은 사람이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하는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검사 재검사에서 2주 이상의 비교적 긴 간격을 두고 재측정한 연구와 종교별 특성, 특히 불교 신자들 사이에서 안정성의 변화를 함께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네 가지 제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증분 타당도를 실시한 결과 IWAH가 실질적으로 친사회적 행동을 예측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친사회적 행동 빈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한 친사회적 행동 목록의 경우 본 연구자가 Eisenberg와 Mussen(1989)를 부분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제작한 뒤 통계적 처리를 한 척도이다. 이는 표준화된 척도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IWAH가 실질적으로 친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지만, 해당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척도를 활용한 반복 검증이 필요하다. 친사회적 행동 목록은 [부록]에 기재하였다. 두 번째, 본 연구의 대상은 만 19세 이상에서 만 59세 이하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만 19세 미만과 만 60세 이상을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의 결과를 전 연령층에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만 19세 미만과 만 60세 이상을 포함하거나 특정한 연구가 필요하다. 세 번째, 본 연구에서 표본의 연령과 성별의 비율을 균등하게 구성하였으나, 직업 유무, 종교 및 학력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서는 수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각 인구통계학적 비율을 고려한 연구를 진행할 경우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결과를 통해 동양권 문화의 특성을 확인하였으나, 동양권 내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함께 확인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동양 전체로 일반화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다른 동양권 국가에서도 유사한 요인 구조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비교 문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 적합한 IWAH 척도를 타당화함으로써, 가속화되는 세계화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차별, 분열을 비롯한 사회적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동일한 집단주의 문화권으로 분류되는 한국과 중국의 요인 구조가 서로 다르게 나타남을 통해 단순한 문화 차원을 넘어 각 문화의 고유한 개념(예: 한국의 '우리성'과 '정', 중국의 '꽌시')을 탐색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이는 타당화 및 문화비교 연구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셋째, IWAH와 '자비'의 개념적 연결성을 바탕으로, 기존 연구에서 확인된 IWAH 증진 방안에서 나아가 자비 중심 명상 프로그램이나 자비 중심 치료개입을 새로운 실천적 대안으로서의 기능을 제안했다는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국내의 다양한 성인 연령층을 대상으로 척도의 타당화가 진행되었으며, 본 연구를 포함하여 8개국에서 타당화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향후 국가 간 비교 문화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자소개

정기훈은 영남대학교 심리학부 석사과정에서 상담심리를 전공중이며, 심리상담과 자비 및 공동체와 관련된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

조현주는 영남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임상 및 상담심리전문가이다. 최근에는 자비 및 명상과 관련된 주제로 연구하고 있으며, 다수의 자비중심치료 역서가있다.

참고문헌

김용신 (2014). 한국 사회의 제노포비아 현상 분석을 위한 개념과 지표의 구축. 국제지역연구, 18(1), 173-199.

노승혜 (2020). 자기비난의 자동적 처리에 대한 마음챙김-자비 프로그램(MLCP)의 개입 효과 및 치료 과전 검증.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남상규 (2023). 명상 프로그램이 지속가능한 삶의 태도를 향상할 수 있는가 : 마음챙김과 자비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민병배, 오현숙, 이주영 (2021). TCI(tm) 기질 및 성격검사 통합 매뉴얼 개정판 (pp. 34-36). 서울: 마음사랑.

성한기 (2001). 한국판 사회정체화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3), 33-48.

유엔국제이주기구 (2024).「세계 이주보고서」. https://publications.iom.int/books/world-migration-report-2024.

이선화, 이규미 (2018). 이타행동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발달지원연구, 7(2), 87-108

정태연, 이장주, 북준성, 전경숙, 허성호, 김동수, 박은미, 손찬호, 전미연, 장민희, 안혜정 (2016). 사회심리학. 서울: 학지사.

조현주 (2014). 자비 및 자애명상의 심리치료적 함의. 인지행동치료, 14(1), 123-143.

조현주 (2019). 심리치료 및 상담과 마음챙김 명상의 접점과 활용방안. 불교문예연구, (14), 11-54.

행정안전부 (2024).「보도자료」.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

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13228.

황미애 (2020). 사회지배성향과 미디어 노출이 청소년의 제노포비아에 미치는 영향: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매개효과. 시민교육연구, 52(3), 239-270.

황은영 (2014). 제노포비아 유형에 따른 초등학생들의 인식 분석.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Adler, A. (2013). Understanding human nature (Psychology revivals). Routledge.

Bartlett, M. S. (1950). Tests of significance in factor analysis.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3, 77-85. doi:https://doi.org/10.1111/j.2044-8317.1950.tb00285.x

Bearden, W. O., Sharma, S., & Teel, J. E. (1982). Sample size effects on chi square and other statistics used in evaluating causal model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9*(4), 425-430. doi:https://doi.org/10.1177/002224378201900404

Bentler, P. M., & Chou, C. P. (1987). Practical issues in structural modeling.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16*(1), 78-117. doi:https://doi.org/10.1177/0049124187016001004

Brewer, M. B. (1979). In-group bias in the minimal intergroup situation: A cognitive-motivational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86*(2), 307-324. doi:https://doi.org/10.1037/0033-2909.86.2.307

Boomsma, A. (1982). The robustness of LISREL against small sample sizes in factor analysis models. In K. G. Jöreskog & H. Wold (Eds.), *Systems under indirect observation: Causality, structure, prediction*. Amsterdam: North-Holland.

Chen, X. P., & Chen, C. C. (2004). On the intricacies of the Chinese guanxi: A process model of guanxi development. *Asia Pacific Journal of Management, 21*(3), 305-324. doi:https://doi.org/10.1023/b:apjm.0000036465.19102.d5

Cheung, G. W., Cooper-Thomas, H. D., Lau, R. S., & Wang, L. C. (2024). Reporting reliability,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wit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review and best-practice recommendations. *Asia pacific journal of management, 41*(2), 745-783. doi:https://doi.org/10.1007/s10490-023-09871-y

Chung, C. K., & Cho, S. J. (2006). Conceptualization of jeong and dynamics of hwabyung. *Psychiatry Investigation, 3*(1), 46-54.

Cho, H. (2018). The Scope of Application for Meditation in Psychotherapy.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7*(3), 431-442. doi:https://doi.org/10.15842/kjcp.2018.37.3.012

Cho, H., Noh, S., Park, S., Ryu, S., Misan, V., & Lee, J. S. (2018).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lovingkindness-compassion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4*, 141-144. doi:https://doi.org/10.1016/j.paid.2017.12.019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2nd ed.).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Crandall, J. E. (1980). Adler's concept of social interest: Theory, measurement, and implications for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3), 481-495.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39.3.481

Eisenberg, N., & Mussen, P. H. (1989). The roots of prosocial behavior in children. Cambridge University Press.

Fabrigar, L. R., Wegener, D. T., MacCallum, R. C., & Strahan, E. J. (1999). Evaluating the use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n psychological research. *Psychological Methods, 4*(3), 272-299. doi:https://doi.org/10.1037/1082-989X.4.3.272

Feng, Y., Warmenhoven, H., Wilson, A., Jin, Y., Chen, R., Wang, Y., & Hamer, K. (2023). The identification with all humanity (IWAH) scale: its psychometric properties and associations

with help-seeking during COVID-19. *Current Psychology, 42*(29), 25485-25497. doi:https://doi.org/10.1007/s12144-022-03607-9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doi:https://doi.org/10.2307/3150979

Gilbert, P. (2020). Compassion: From its evolution to a psychotherapy. *Frontiers In Psychology, 11*, 586161. doi:https://doi.org/10.3389/fpsyg.2020.586161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 (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 (5th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Hamer, K., Penczek, M., McFarland, S., Wlodarczyk, A., Łużniak Piecha, M., Golińska, A., Cdena, L. m., Ibarra, M., Bertin, P., & Delouvée, S. (2021). Identification with all humanity-A test of the factorial structure and measurement invariance of the scale in five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56*(1), 157-174. doi:https://doi.org/10.1002/ijop.12678

Ho, A. K., Sidanius, J., Kteily, N., Sheehy-Skeffington, J., Pratto, F., Henkel, K. E., Foels, R., & Stewart, A. L. (2015). The nature of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Theorizing and measuring preferences for intergroup inequality using the new SDO7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9*(6), 1003-1028. doi:https://doi.org/10.1037/pspi0000033

Horn, J. L. (1965). A rationale and test for the number of factors in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30*(2), 179-185. doi:https://doi.org/10.1007/BF02289447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doi:https://doi.org/10.1080/10705519909540118

Hwang, K. K. (1987). Face and favor: The Chinese power gam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2*(4), 944-974. doi:https://doi.org/10.1086/228588

Jones, A., & Crandall, R. (1986). Validation of a short index of self-actu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2*(1), 63-73. doi:https://doi.org/10.1177/0146167286121007

Jum C. Nunnally, Ira H. Bernstein., (1994). Psychometric theory(3rd ed.). NY: McGraw-Hill.

Kaiser, H. F. (1974). An index of factorial simplicity. *Psychometrika, 39*(1), 31-36. doi:https://doi.org/10.1007/BF02291575

Koo, T. K., & Li, M. Y. (2016). A guideline of selecting and reporting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 for reliability research. *Journal Of Chiropractic Medicine, 15*(2), 155-163. doi:https://doi.org/10.1016/j.jcm.2016.02.012

Levinson, D. J. (1950). Politico¯economic ideology and group memberships in relation to ethnocentrism. In T. W. Adorno, E. Frenkel¯Brunswik, D. J. Levinson, & R. N. Sanford (Eds.),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pp. 151-221). New York, NY: Harper & Brothers.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253. doi:https://doi.org/10.1037/0033-295X.98.2.224

Maslow, A. H. (2023). Motivation and personality: motivation and personality: unlocking your inner drive and understanding human behavior by AH Maslow. Prabhat Prakashan.

McFarland, S., Hackett, J., Hamer, K., Katzarska Miller, I., Malsch, A., Reese, G., & Reysen, S. (2019). Global human identification and citizenship: A review of psychological studies.

Political Psychology, 40, 141-171. doi:https://doi.org/10.1111/pops.12572

McFarland, S., Webb, M., & Brown, D. (2012). All humanity is my ingroup: a measure and studies of identification with all human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3*(5), 830-853. doi:https://doi.org/10.1037/a0028724

Reese, G., Proch, J., & Finn, C. (2015). Identification with all humanity: The role of self definition and self investment.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5*(4), 426-440. doi:https://doi.org/10.1002/ejsp.2102

Reysen, S., & Katzarska-Miller, I. (2013). A model of global citizenship: Antecedents and outcome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48*(5), 858-870. doi:https://doi.org/10.1080/00207594.2012.701749

Reysen, S., & Hackett, J. (2016). Further examination of the factor structure and validity of the identification with all humanity scale. *Current Psychology, 35*, 711-719 doi:https://doi.org/10.1007/s12144-015-9341-y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18-29. doi:https://doi.org/10.1037/0022-0167.45.1.18

Shostrom, E. L. (1964). An inventory for the measurement of self-actualization.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24*(2), 207-218. doi: https://doi.org/10.1177/001316446402400 20

Sidanius, J., & Pratto, F. (2011). Social dominance theory. In Paul. A. M. Van Lange, Arie. W. Kruglanski, & E. Tory Higgins (Eds.), *Handbook of theories of social psychology*(Vol. 2, pp. 418-438). Sage Publications.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56-75). Thousand Oaks, CA: Sage

Worthington, R. L., & Whittaker, T. A. (2006). Scale development research: A content analysis and recommendations for best practice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4*(6), 806-838. doi:10.1177/0011000006288127

1 차원고접수 : 2025. 09. 29.
수정원고접수 : 2025. 12. 11.
최종게재결정 : 2025. 12. 22.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26, Vol. 40, No. 1, 1-27
https://doi.org/10.21193/kjspp.2026.40.1.001

Regular Article

Validating the Korea Version of Identification With All Humanity Scale

Ki-Hoon, Jeong **Hyun-Ju, Cho**

Department of Psychology, Yeungnam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translate and validate the Korean version of the Identification With All Humanity (IWAH) scale. Using a sample of 400 adults, the data were randomly split for cross-validation with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Results indicated that an 8-item, two-factor structure, consistent with the Western model, provided the best model fit. While correlations with related constructs like compassion were modest, the scale demonstrated acceptable internal consistency and convergent validity, with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and Construct Reliability (CR) meeting standard criteria. Discriminant validity was supported by a non-significant correlation with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n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xenophobia. Furthermore, the K-IWAH demonstrated incremental validity by significantly predicting altruistic behavior, prosocial behavior, and sustainable life attitudes. This study provides a valid instrument for measuring IWAH in the Korean cultural context, offering a foundation for future research on social conflict and cooperation in an era of globalization.

Key words : Global Citizenship, Validation, Identification With All Humanity Scale, IWAH

부록: 한국판 전인류 동일시 척도(Korea-Identification With All Humanity; K-IWAH)

다음은 각 집단에 대해서 본인이 느끼는 정도에 관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곳에 각각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다음 각 집단에 대해 얼마나 가까움을 느끼십니까?

집단	응답				
	전혀 가깝지 않다.	별로 가깝지 않다.	약간 또는 다소 가깝다.	꽤 가깝다.	매우 가깝다.
1)내가 속한 지역 사회 사람들	①	②	③	④	⑤
2)한국 사람들	①	②	③	④	⑤
3)전 세계 사람들	①	②	③	④	⑤

2. 다음 각 집단의 사람들을 지칭 할 때 “우리”라는 단어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십니까?

집단	응답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드물게 사용한다.	가끔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	매우 자주 사용한다.
1)내가 속한 지역 사회 사람들	①	②	③	④	⑤
2)한국 사람들	①	②	③	④	⑤
3)전 세계 사람들	①	②	③	④	⑤

3. 다음 각 집단과 얼마나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집단	응답				
	거의 공통점이 없다.	아주 조금 공통점이 있다.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다.	꽤 많은 공통점이 있다.	매우 많은 공통점이 있다.
1)내가 속한 지역 사회 사람들	①	②	③	④	⑤
2)한국 사람들	①	②	③	④	⑤
3)전 세계 사람들	①	②	③	④	⑤

4. 때때로 사람들은 직계 가족이 아닌 사람들을 “가족” 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다음 각 집단을 어느 정도로 “가족”으로 생각하십니까?

집단	응답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내가 속한 지역 사회 사람들	①	②	③	④	⑤
2)한국 사람들	①	②	③	④	⑤
3)전 세계 사람들	①	②	③	④	⑤

5. 다음 각 집단과 자신을 얼마나 동일시하십니까?(즉, 일부가 되고, 사랑하고, 염려하는지)

집단	응답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내가 속한 지역 사회 사람들	①	②	③	④	⑤
2)한국 사람들	①	②	③	④	⑤
3)전 세계 사람들	①	②	③	④	⑤

6. 당신은 나쁜 일이 발생할 때, 다음 각 집단에 대해 얼마나 신경 쓰이십니까?
(예를 들어, 그들 일에 화가 나거나, 돕고 싶다던가)

집단	응답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내가 속한 지역 사회 사람들	①	②	③	④	⑤
2)한국 사람들	①	②	③	④	⑤
3)전 세계 사람들	①	②	③	④	⑤

7. 다음 중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집단	응답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내가 속한 지역 사회 사람	①	②	③	④	⑤
2)한국사람	①	②	③	④	⑤
3)전 세계 사람	①	②	③	④	⑤

8. 당신은 각 그룹에 대해 어느 정도 충성심을 갖나요?

집단	응답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내가 속한 지역 사회에 대해	①	②	③	④	⑤
2)한국에 대해	①	②	③	④	⑤
3)인류 전체에 대해	①	②	③	④	⑤

9.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얼마나 도와주고 싶으십니까?

집단	응답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내가 속한 지역 사회 사람들	①	②	③	④	⑤
2)한국 사람들	①	②	③	④	⑤
3)전 세계 사람들	①	②	③	④	⑤

※ IWAH 점수는 각 문항의 '3)전 세계 사람들' 점수의 합산으로 계산한다.
※ 전인류에 대한 심리적 동일시: 1, 2, 3, 4
※ 전인류적 책임감: 6, 7, 8, 9

부록: 친사회적 행동 목록

최근 1년(혹은 직전연도 기준) 다음 행동을 1년간 몇 번 정도 행하였는지 표시해 주세요.

문항	응답				
	0회	1~3회	4~6회	7~9회	10회 이상
1. 헌혈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자원봉사에 참여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낯선 사람에 대하여 길을 잃었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주변 사람(친구, 동료 등)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시간을 내어 직접 도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사회적 약자(노숙인, 장애인 등)를 돕는 행동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온라인에서 사회적/인도적 캠페인(예: 재난 후원, 난민 지원 등)을 공유하거나 참여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환경 보호를 위한 캠페인(예: 일회용품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 나무 심기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사회적/시민적 참여 활동(예: 서명운동, 인권 캠페인, 시위 참여 등)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 정서적 · 직접적 도움행동: 1, 3, 4, 5, 6

※ 사회적 · 간접적 참여행동: 2, 7, 8, 9